

## 陶山書院要鑑\*

낙동강 상류인 경북 安東郡 陶山面 土溪洞에 소재하는 陶山書院은 퇴계선생께서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던 유적지로서 선생 생존시에 지은 陶山書堂 및 隴雲精舍 등과 사후에 건축된 尙德祠, 典教堂, 光明室 東齋 西齋 등 여러 건물로 한 고을을 이루고 있다.

도산서원 경내에 있는 중요 건물과 주변의 유적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陶山書堂

도산서원을 들어서면 進道門 밖 오른쪽에 세간 기와집이 있으니 이 건물이 1557년 퇴계선생이 57세이던 해에 전국에서 모여드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손수 지은 도산서당이다.

이 건물 한 가운데 있는 온돌방을 玩樂齋라 부르고, 동쪽편에 있는 마루방을 巖栖軒이라 부른다. <완락재>란 이름은 주자의 名堂實記에 나오는 ‘玩堂하여 즐기니 죽히 평생토록 지내도 싫지 않겠다’는 글에서 따온 이름이고, <암서헌>이라는 이름 역시 주자의 ‘학문에 대한 자신을 오래도록 갖지 못하였더니 바위에 깃들여(巖栖) 조그만 효험이라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글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한다.

퇴계선생은 언제나 완락재에 기거하며 학문을 연구하였고, 암서헌에서는 제자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그리고 서당 서쪽편 부엌에 달려있는 조그만 골방은 서당을 숙직하

\* 李熙大 편저, 「退溪門人錄」(太陽社, 1972)에서 발췌·수록한 것임

던 불승 法蓮과 淨一이 거처하던 방이며 마루방 옆에 부설되어 있는 살평상은 제자인 寒岡 鄭述가 安東府使로 재임중일 때 은사를 위해 특별히 기증해 온 건물이다.

## 2. 隴雲精舍

도산서당 서쪽, 즉 進道門 밖 왼쪽편에 자리잡고 있는 8간짜리 건물이 隴雲精舍로 이 건물도 퇴계선생 생존시 제자들의 훈학을 위해 지은 집이다.

이 건물의 구조는 공부의 <工>자를 따서 工자형으로 지은 것이 특색이며 공부하는 방을 <時習齋>라 부르고 학생들이 기거하던 방을 <止宿寮>라 부른다.

그리고 이 건물에는 길다란 마루가 있으니 남쪽으로 향한 이 마루에서는 낙동강의 푸른 물을 굽어볼 수 있다고 하여 <觀瀾軒>이라고 불렀다.

그밖에 옛날 도산서당에 출입하는 조그마한 門을 <幽貞門>이라 불렀는데 그 어원 역시 <그윽하고 바르다>는 뜻으로 주역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한다.

## 3. 亦樂書齋

도산서당과 농운정사와는 별개로 1550년대에 세워진 건물을 역락서재라고 하며 이 건물은 芝軒 鄭士誠의 부친이 아들을 퇴계선생에게 제자로 맡길 때 특별히 지어준 건물이다.

鄭芝軒이 어릴 때 글 공부하던 곳이라 하여 일명 童蒙齋라고도 부르는 이 건물 명칭은 논어에 나오는 <먼곳에서 친구가 찾아 왔으니 이 또한 어찌 기쁘지 아니하랴>(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라는 글에서 인용한 것이다.

#### 4. 進道門

도산서원의 정문을 진도문이라고 부르며 도산서원을 참관하려면 반드시 이 문을 거쳐 들어가야 한다.

문기둥에 큰 북이 달려 있는데 그것은 잡배들의 출입을 금한다는 뜻으로 달아 놓은 것이라고 한다.

#### 5. 尙德祠

상덕사는 도산서원 후면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퇴계선생의 사당이다.

이 곳에는 선생의 위패를 모셔놓고 봄 가을(음력 2월과 8월 中丁日)로 1년에 두차례 향사를 지낸다.

상덕사 동쪽 벽에 從享位로 제자인 월천 조목의 위패도 종향하고 있으나 그것은 도산서원이 건립된 지 36년 후부터의 일이다.

상덕사 건물에는 그밖에 廟直室과 廚舍 두 개가 달려 있다.

<묘직실>은 祠堂을 수호하는 묘직이가 거처하는 방이고 두 廚舍 중 아래주사는 공부하는 유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주방이며 윗주사는 서원에 관련이 있는 일반 내방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주방이다.

그리고 상덕사의 서편 담 옆에 典祠廳이란 건물이 있는데 이곳은 春秋로 향사를 올릴 때 제수를 장만하는 곳이다.

#### 6. 典敎堂

서원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典敎堂은 여러사람이 모여 강론을 하거나 큰 회합을 개최해 오던 장소로 현대 교육기관의 대강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건물 정면에는 <陶山書院> 현판이 걸려 있으며 이 현판은 선조대왕 때 임금이 내린 <賜額>현판으로 글씨는 당대의 명필이던 石峯 韓濩가 쓴 것이다.

그리고 전교당 대청에 걸려 있는 賜祭文은 정조대왕의 어필이며 그 밖에 대청 벽에는 院規를 비롯하여 白鹿洞規, 四勿箴, 夙興夜寐箴, 敬齋箴, 國忌案 등 퇴계와 관련되는 글이 새겨진 현판들이 많이 걸려 있다.

#### 7. 閑存齋와 東西齋

閑存齋는 典敎堂 서편에 달려있는 온돌방으로서, 이 방이 서원 원장이 거처하면서 院務를 통괄하던 곳이다.

그리고 전교당 좌우 양편에는 똑같은 두 개의 건물이 있는데, 동쪽편 건물을 博約齋라 부르고 서쪽편 건물을 弘毅齋라 부르며 양쪽 모두 도산서원에 공부하러 오는 선비(유생)들이 거처하던 곳이다. 한편 典敎堂, 閑存齋, 弘毅齋, 進道門 등의 현판 글씨는 모두 進士 李日三이 쓴 것이라 한다.

#### 8. 光明室

進道門을 들어서면 동서 양편에 각각 한 채의 藏書庫가 있으며 이 장서고를 광명실이라 부른다.

이 유래는 주역에 있는 <吾道日以光明>이라는 구절에서 <光明>이라는 두 글자를 따온 것으로 그 현판은 퇴계선생의 글씨로써 易東書院에 있는 것을 模刻해 온 것이다.

동쪽 光明室은 純祖 19년(1819)에 지은 건물로서 역대 임금이 下賜한 서적과 퇴계선생이 평소에 읽던 수택본 및 친필 서간집인 <師門手簡> 등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이곳에는 正祖대왕이 퇴계

선생의 저서를 읽고 친히 어제 어필로 題籤하고 跋文을 써 준 귀중한 책도 보관되어 있다.

서쪽 광명실은 동쪽 광명실 보다 훨씬 후인 1930년에 증축한 건물로 이 藏書庫에는 주로 국내 유학자들의 문집 등이 보관되어 있으며 일본 유학자 村士玉水の 退溪書抄 14책도 여기에 보관되어 있다.

양쪽 서고, 즉 광명실에 보관되어 있는 서적은 종류별로 약 1천 3백 여종이고 권수로는 5천여권이 보관되어 있다.

### 9. 藏版閣

典敎堂 동편에 기와로 지은 건물이 있으니 이곳에는 퇴계선생의 저서와 文集, 遺墨을 판각한 판본이 보관되어 있다.

도산서원 전용 출판소라고 할 수 있는 이곳 藏版閣에는 퇴계선생의 문집과 유목을 비롯하여 朱子書節要, 理學通錄, 啓蒙傳疑 등 저서의 판본과 퇴계선생의 門人들을 수록한 陶山及文諸賢錄 및 선생의 言行錄, 陶山十二曲의 판본도 함께 보관되어 있다.

### 10. 玉振閣

퇴계선생께서 생존시에 사용하던 각종 유물을 보관하는 건물을 玉振閣이라 부른다. 서원 창건 이후 여러 차례 보수하고 중건해 왔던 옥진각은 1970년대에 이르러 정부가 문화재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陶山書院을 성역화할 때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여 각종 유물을 보관 전시하는 유물전시관으로 그 규모를 확장하게 되었다.

이 옥진각에 전시되어 있는 유품을 보면 퇴계선생께서 사용하던 벼루, 먹, 碩匣 등 문구를 비롯하여 자리, 안석, 비, 投壺 등 실내 비품, 渾天儀(오늘날의 地球 모형), 서적, 유묵 등등이다.

## 11. 冽井과 淨友塘

도산서당 남쪽에 조그만 우물이 있다. 물이 맑고 물맛이 좋아 음료수로 쓰기에 적합하므로 퇴계선생은 이 우물을 冽井이라고 불렀다.

선생의 四言詩에 <書堂之南, 石井甘冽>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 표현된 우물이 바로 冽井이다.

그리고 퇴계선생은 도산서당 앞에 조그만 연못을 파놓고, 이 연못의 이름을 淨友塘이라고 불렀다.

선생이 지은 陶山記에 나오는 <淨友塘>이 바로 이 연못을 지칭한 것이다.

## 12. 蒙泉과 節友社

정우당 동쪽 산 기슭에 조그만 샘물이 있다. 퇴계선생은 이 샘물 이름을 <蒙泉>이라고 불렀다. 그 뜻은 周易에 <산 위에서 솟아나는 샘을 蒙이라고 부른다>는 글귀에서 따온 이름이다.

그리고 퇴계는 蒙泉 위의 산 기슭에 조그만 花壇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매화화 대나무, 소나무, 국화 등 각종 꽃과 상록수를 가꾸기를 좋아 했는데 이 화단 이름을 節友社라고 불렀다. 절우사에 관한 유래도 陶山記 등 여러 문헌에 실려 있다.

## 13. 谷口巖과 石澗臺

옛날 낙동강 기슭을 따라 도산서당으로 들어가는 길목(洞口) 좌우편 산 기슭이 자연의 山門처럼 되어 있었으므로 퇴계선생은 이 산문을 이루고 있는 바위들을 谷口巖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곡구암>이라는 이름은 옛날 漢나라의 隱士인 鄭子眞의 <耕於谷口>

라는 글에서 따온 것이다.

곡구암에서 큰 길을 따라 3백미터쯤 떨어진 곳에 큰 石臺가 있는데 퇴계선생은 이것을 石澗臺라고 명명하였다.

이 석간대에는 퇴계선생이 멀리서 온 제자 龜巖 李禎과 작별할 때 이곳에서 唐詩 한 구절을 읊은 일이 있었기에, 지금도 암벽에는 <君去春山誰共遊, 鳥啼花落水空流>(그대 가니 누구와 더불어 이 봄을 노닐고, 새울고 꽃은 떨어져 물만 홀로 흐르네)로 시작되는 그 시가 새겨져 있다.

그러나 안동댐이 건설된 후 출입구가 바뀌어지면서 외진 유적지가 되었다.

#### 14. 天淵臺와 雲影臺

서당 입구 谷口巖을 중심으로 양편 산 기슭이 강에 임해 절벽을 이루고 있으므로, 퇴계선생은 그 중복을 다듬어 臺를 만들어 놓고, 동쪽대를 天淵臺, 서쪽대를 雲影臺라고 이름지어 불렀다고 한다. 천연대라는 이름은 중용에 나오는 <鳶飛戾天 魚躍于淵>(수리는 하늘에 날고 고기는 못에서 뛰다)이라는 글에서 따온 것이고, <운영대> 역시 中庸의 <天光雲影共徘徊>(햇빛과 구름이 그림자와 함께 배회한다)는 글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한다.

#### 15. 濯纓潭과 盤陀石

옛날 낙동강 상류 黃池에서 흘러내리던 강물이 陶山書堂이 있는 산 언덕 밑에 이르러 커다란 沼(호수)를 이루어 한결 운치를 돋구었으며 퇴계선생은 그 소를 濯纓潭이라고 이름지어 불렀다.

<濯纓>이라는 두 글자는 屈原이 지은 漁夫辭에 나오는 <滄浪之水 清兮濯纓>(창랑의 물이 맑으면 내 갓끈을 씻고)라는 글귀에서 따온 것이

라 한다.

그리고 탁영담에는 커다란 바위 하나가 물속에 잠겨있어 강물이 불어 날 때면 모습을 감추었다가 물이 줄어들면 모습을 드러내곤 했는데 그 바위를 盤陀石이라 불렀다.

퇴계선생은 일찍이 이 반타석을 두고 시를 지은 바도 있다. 그러나 안동댐이 완성되면서 濯纓潭과 盤陀石은 수중에 매몰되어 이제는 그 모습을 영원히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 16. 試土壇

안동댐이 완성되고 나서 도산서원 앞 옛 강변은 호수가 되어 버렸다.

그 호수 한 복판에 조그만 섬이 있고 그 섬 위에는 작은 碑閣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試土壇이라 부른다.

이 비각은 정조 임금 때인 1792년 퇴계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閣臣(李晩秀)을 보내 이곳에서 실시한 과거시험, 즉 陶山別科 시험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이례적으로 실시된 도산별과는 당시 천주교가 한국에 들어와 경향 각지의 禮俗을 크게 변모시켰는데, 영남 일대만은 유생들의 저항으로 그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으므로 정조 임금은 그것을 <先正之德化> 덕택이라고 믿고 도산서원에 제문을 친히 지어 보내고, 아울러 영남 일대의 선비들의 사기를 돋구어 주기 위해 퇴계선생의 유적지인 이곳에서 도산별과를 보게 하는 특전을 베풀어 주었던 것이다.

그때의 성전을 기념하기 위해 단을 만들고 비를 세웠는데, 당초에는 서원 건너편 강 언덕에 세워졌던 것을 안동댐 공사가 시작되면서 옛 그 자리에 섬을 만들어 다시 重修하게 된 것이다.

시사단에 새겨진 비문은 당대의 문장가이고 정치가이던 樊巖 蔡濟恭 선생이 지었는데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陶水洋洋 其上也壇 壇有階級  
 水有淵源 登壇臨水 觸類而律  
 先生之化 聖主之德>

(도산물은 양양하게 흐르는데, 그 위에 단이로다. 단에는 계급이 있고, 물에는 근원이 있나니, 단에 올라 물에 임해 뿌리를 따라 뜻을 펴 노니, 모두가 선생의 덕화요 임금의 은혜로다.)

### 17. 寒棲菴

門人錄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寒棲菴은 陶山書堂과는 멀리 떨어져 있던 건물이다.

퇴계선생은 지금의 宗宅 건너 동편 산 기슭에 조그만 암자를 짓고 주로 그곳에서 독서와 정양을 즐기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 건물을 寒棲菴이라고 불렀으며 한서암에는 공부하는 방인 靜習堂과 幽貞門이라는 출입문이 있었다.

퇴계선생이 세상을 떠날때까지 이곳에서 기거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출입이 빈번했던 유서깊은 곳이나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건물이 모두 破落하여 지금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한서암 인근에 위치하던 퇴계 宗宅은 선생 서거 후 세차레나 신축하고 증축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정착하게 되었으나 본래의 종택 뜰에는 光影塘이라는 연못이 있었으며 연못 한가운데에는 彈琴石이라 불리우는 바위가 있었는데 탄금석은 아직도 옛터에 그대로 남아 있다.

### 18. 退溪先生 墓所

퇴계선생의 묘소는 종택에서 남쪽으로 약 1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토계동 牽芝山 남쪽 산봉우리 위에 위치한다.

문인록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선생의 遺戒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은 정부 방침에 의하여 오늘날의 국장인 禮葬으로 치루어졌으나 성현의 묘소로서는 초라한 편이다.

이는 선생의 遺戒에 따라 神道碑나 儀物 등을 일체 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退陶晚隱眞城李公之墓>라는 묘비만을 세워두었기 때문이다.

묘비의 뒷면에는 선생의 自銘과 門人 奇高峯이 지은 墓碣文이 새겨져 있다.